

04 학 력 평 가 와 모 의 평 가

6월·9월이 무거운 까닭

평가원이 내고 졸업생이 들어옵니다

- ◆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CONTENTS

01 먼저 사실부터	2
02 무엇이 달라지나	3
03 9월	4
04 그래서 무엇을	5
05 자주 묻는 것	6

무엇이 들어 있나

- ◆ 3월과 6월은 건줄 수 없는 두 시험입니다 — 무엇이 바뀌는가
- ◆ 졸업생은 상위권에 더 몰립니다 — 그래서 상위권이 더 밀립니다
- ◆ 9월은 원서 직전 마지막 자료 — 성적표가 접수보다 늦게 나오는 함정
- ◆ 9월 성적으로 여섯 장의 최저를 배분하는 법

01 · 먼저 사실부터

두 가지가 한꺼번에 바뀝니다

6월 모평이 한 해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한꺼번에 바뀌기 때문입니다 — 내는 곳이 바뀌고, 보는 사람이 바뀝니다.

	3월 학평	6월 모평
내는 곳	시·도 교육청	평가원 — 수능과 같습니다
보는 사람	재학생	졸업생도
범위	배운 데까지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6월에 등급이 밀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력이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걸 모르고 6월 성적표를 보면 크게 흔들리십니다. 매년 6월에 상담이 몰리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6월을 봐야 하는 까닭

3월까지의 「우리끼리」 본 성적이었습시다. 6월에 처음으로 수능과 비슷한 집단에서 재 봅니다.

그러니 6월이 아픈 만큼 정확합니다. 3월 성적으로 세운 계획은 대개 낙관적이고, 6월에 그 계획을 고치게 됩니다.

고치는 것이 목적이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6월이 한 해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입니다.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시행 공고(2026년 8월 기준). 시행 일정과 응시 대상은 해마다·시도마다 다르다. 그 해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범위도 시험마다 다르다.

02 · 무엇이 달라지나

전주는 집단이 바뀝니다

졸업생이 들어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짚어 보겠습니다.

졸업생은	어떤 집단인가
준비 기간	1년을 더 했습니다
전 범위	다 배웠습니다
목표	대개 더 나은 대학을 노립니다

셋째 줄이 중요합니다. 졸업생은 고르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상위권에 더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일수록 6월에 더 크게 밀립니다. 중하위권은 상대적으로 덜 밀립니다.

이건 저희 관찰이고 해마다 다릅니다. 「몇 등급 밀린다」는 숫자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범위가 넓어집니다

6월은 3월보다 넓지만 아직 전 범위는 아닙니다. 9월이 전 범위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러니 6월에서 9월로 갈 때 또 한 번 조건이 바뀝니다. 6월과 9월을 견주실 때도 그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출처: 평가원 시행 공고. 응시 집단의 분포에 대한 부분은 저희 관찰이며 확정된 통계가 아닙니다. 범위는 회차마다 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03 · 9월

원서 직전의 마지막 자료

9월 모평은 수시 원서를 내기 직전에 나오는 마지막 자료입니다.

시기	무슨 일이 있나
9월 초	모평
9월 중순	수시 원서 접수
9월 말 ~10월	모평 성적표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성적표가 원서 접수보다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채점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시험 본 날 저녁에 채점하고 등급을 짐작해 두십시오.

9월을 어떻게 쓸 것인가

수시 여섯 장에 최저를 몇 개 걸 것인가를 여기서 정합니다.

9월이 이렇다면	여섯 장을
최저를 넉넉히 넘겼다면	최저 있는 자리를 더 써도 됩니다
아슬아슬하다면	최저 없는 자리를 씁습니다
많이 모자란다면	최저 있는 자리는 줄입니다

이게 9월 모평의 실제 쓸모입니다. 「대학을 정하는 자료」가 아니라 「원서를 나누는 자료」입니다.

출처: 평가원 시행 공고 및 대학별 수시 일정. 성적 통지일과 원서 접수일은 해마다 다릅니다 — 그 해 일정을 확인하십시오.

04 · 그래서 무엇을

6월과 9월을 쓰는 법

시기	무엇을 정하나
6월 뒤	수시와 정시의 무게를 잡습니다
여름	부족한 과목을 메웁니다
9월 당일	가채점으로 최저 가능성을 봅니다
9월 원서	여섯 장의 최저 배분을 정합니다

첫째 줄이 한 해의 가장 큰 판단입니다. 6월 성적이 내신보다 좋으면 정시 쪽 무게를 늘리고, 내신이 더 좋으면 수시 쪽입니다.

다만 6월 한 번으로 정하지는 마십시오. 9월까지 보고 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6월·9월에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6월에 졸업생이 들어온다 는 것을 아는가
- ☐ 6월에 밀린 것을 실력 저하로 읽고 있지 않은가
- ☐ 과목별 백분위 를 3월과 견줘 보는가
- ☐ 여름에 메울 과목 하나 를 정했는가
- ☐ 9월 가채점 을 할 계획인가
- ☐ 지원할 자리의 최저 조건 을 적어 두었는가
- ☐ 최저 없는 자리 를 몇 장 넣을지 정했는가
- ☐ 수시·정시 무게를 9월까지 보고 정하기로 했는가

다섯째를 꼭 하십시오. 성적표가 원서 접수보다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채점이 없으면 짐작으로 원서를 쓰게 됩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6월 성적표를 받고 오시는 부모님이 한 해 중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대개 「많이 떨어졌다」고 하십니다. 졸업생이 들어와서 밀린 것인데, 그걸 모르고 아이를 다그치는 일이 매년 있습니다. 3월과 6월은 견줄 수 없는 시험입니다 — 이 한 줄만 아셔도 6월이 훨씬 덜 아픕니다.

05 · 자주 묻는 것

6월·9월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6월에 크게 떨어졌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먼저 「떨어졌다」가 무엇을 기준으로 한 말인지 보십시오.

3월과 견주신 것이라면 그건 견줄 수 없는 두 시험입니다. 졸업생이 들어왔고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밀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판단하실 자리는 과목별 백분위의 모양입니다. 모든 과목이 고르게 밀렸다면 그건 집단이 바뀐 영향이 큼니다. 한 과목만 크게 무너졌다면 그건 그 과목의 문제입니다.

앞이면 걱정하실 일이 아니고, 뒤면 여름에 손대실 자리입니다.

그리고 6월은 아직 이릅니다. 수능까지 다섯 달이 남아 있고, 9월에 한 번 더 봅니다.

Q. 9월 모평을 안 보는 게 나을까요?

보시는 편을 권합니다. 수시 원서를 나누는 데 쓸 마지막 자료입니다.

「떨어지면 마음만 상한다」고 안 보시려는 경우가 있는데, 안 보면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짐작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섯 장을 감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9월은 수능과 조건이 가장 가까운 시험입니다. 시험장에서 시간을 어떻게 쓸지 연습할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만 결과에 크게 흔들리는 아이라면 성적을 어떻게 다룰지 미리 이야기해 두십시오. 「이건 연습이고 여기서 고칠 것을 찾는 것」이라고요.

보되 무겁게 받지 않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6월은 견주는 집단이 바뀌는 자리이고, 9월은 여섯 장을 나누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평가원 시행 공고를 정리한 것입니다. 일정과 범위는 해마다 다릅니다. 응시 집단 분포에 대한 부분은 저희 관찰입니다.